

광주·전남 청년층 도박 중독 급증...20대 손실액 8440만

20대 청년층 관련 상담 1.4배 ↑ ...도박기간도 전연령대 중 유일 증가 도박 손실액, 10대 1810만 원·20대 8440만 원...작년보다 큰 폭 상승 정신 건강도 위기 “감염병 끝나도 여파 지속될 듯...지역연대 절실”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도 광주·전남 지역 도박 중독자가 20대 청년층을 중심으로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보다 도박에 따른 경제적 손실 규모와 정신 건강상 위기 역시 커지고 있고,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이 같은 양상은 지속될 것으로 보여

조기에 문제 개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광주전남센터는 코로나19 전후의 광주·전남 지역민의 도박 문제 현황 조사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18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3년간 매년 1월1일부터 10

월31일까지의 기간을 범위로 설정했다. 같은 기간 중 센터 치유 재활서비스를 이용한 지역민 1212명의 도박 문제 양상 분석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센터를 방문하는 도박중독자의 수는 지난해보다 10% 증가했다.

특히 20대 연령층의 도박 문제가 코로나19 증가세가 가파르다. 지난해보다 도박 문제로 센터를 찾은 20대는 1.4배 가량 증가했다. 이는 센터 이용자의 34%를 차지한다. 도박 기간도 다른 연령층에 비해 유일하게 늘어났다.

도박 손실액 증가세도 두드러졌다. 10대는 지난해 평균 494만 원을 도박으로 잃었으나 올해는 1810만 원으로 손실액이 늘었다. 같은 기간 20대 역시 지난해보다 1.3배 증가한 8440만 원의 손실을 입었다.

5000만 원 이상의 도박 손실액 비율도 1.2배 증가했다.

이에 따라 도박 문제로 인한 정신 건강 위기를 호소하는 지역민도 코

로나 이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보다 센터에 도움을 요청한 지역민이 3배 가량 급증했다. 심각한 정신 건강상 위기에 처한 지역민 또한 2배 가량 늘었다.

여성 도박자와 무직 도박자의 비율도 각각 2배, 1.2배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은경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광주전남센터장은 “코로나19 이후 광주·전남 지역민 중 20대 연령층의 도박 문제가 심화 양상을 띄고 있다. 도박으로 정신 건강 위기 또한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사

회경제적 변화의 여파는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도박 문제에 대한 지역민의 관심과 함께 조기 개입을 위한 지역 연대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광주전남센터는 도박문제 예방·폐해 최소화를 위해 설립된 지역 내 유일한 도박문제 예방치유 전문기관이다.

도박 중독 문제를 겪고 있는 본인 또는 가족은 누구나 ▲국번 없이 1336(전화·문자메시지) ▲온라인 채팅 배너인 ▲카카오톡 챗봇(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친구 추가) 등을 통해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김미희기자



집회도 사회적 거리두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24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산재로 사망한 99인의 노동자 영정을 두고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을 위한 집중 집회'를 하고 있다. 이들 사이에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경찰 펜스가 설치돼 있다.

이형석 의원 “전두환 선고 재판 생중계 해야”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광주 북구을)은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씨에 대한 1심 선고 재판을 생중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오는 30일 예정된 전두환 씨에 대한 1심 선고 재판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 규명 핵심 과제인 헬기 사격 여부에 대한 법적 판단이 이뤄지는 ‘역사의 장’이라며 이갈

이 강조했다.

이 의원은 특히 “5·18 학살의 최종 책임자인 전 씨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은 5·18 역사왜곡 세력에 대한 준엄한 경고이자,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면서 “비록 불구속 피고인에 대한 생중계 전례가 없다고 하더라도 전 씨에 대한 재판만은 생중계를 통해 전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의원은 “5·18 당시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이라고 기소할 전두환 회고록 출판(2017년 4월)과 이에 대한 고소로 시작된 전 씨에 대한 재판은 3년 7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이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면서 “책임회피로 일관하고 있는 전 씨를 단죄해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동취재본부

한달새 집단감염 3배 폭증...모임·다중이용시설 급증

가족·지인모임 18건, 다중시설 10건
“접촉 빈도·마스크 미착용 장소서 ↑”

(단위 : 집단발생 건수)

구 분	주차*			
	43주차 (10.19-10.24)	44주차 (10.25-10.31)	45주차 (11.1-11.7)	46주차 (11.8-11.14)
계	14	17	16	41
가족/지인모임	6	3	3	18
다중이용시설	1	2	2	10
사업장	2	5	8	5
의료기관/요양시설	5	2	-	4
교육시설	-	4	1	2
종교시설	-	1	1	-
집합업설명회	-	-	1	-
기타	-	-	-	2

* 기간 분류 기준 : 집단사례 지표환자가 확진된 날짜 기준 분류
※ 11.23일 18시 기준,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최근 한 달 사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3배 가까이 폭증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접촉 빈도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가족·지인 모임이나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집단감염이 눈에 띄게 늘어났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24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집단감염 사례 유형별 발생 추이’ 분석결과를 공개했다.

이 결과를 보면 코로나19 발생 46주차인 이달 8~14일 집단감염 발생 건수는 41건이었다.

한 달전인 43주차(10월 19~24일)에 14건이 발생했던 것과 비교하면 192.8%(27건) 증가한 것이다.

46주차의 집단감염 발생 장소로

는 가족·지인모임 18건, 다중이용시설 10건, 사업장 5건, 의료기관·요양시설 4건, 교육시설 2건, 기타 2건으로 나타났다.

43주차와 견주면 가족·지인모임(6건)이 12건, 다중이용시설(1건)이 9건 더 많다.

사업장(2건)에서도 3건 더 많았다.

접촉 빈도가 높으면서 마스크를 쓰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장소에서 집단감염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권준욱 방대본 제2본부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2주 전인 46주차의 집단감염이 약 한 달전에 비해 2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내용적으로 더 우려되는 건 집단감염의 발생 장소가 가족·지인 모임과 다중이용시설이라는 점”이라고 말했다.

권 부본부장은 “국민들은 불요불급한 모임 참석은 최대한 자제하는 등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방역수칙 준수가 필요하다”며 “동시에 의료기관·요양시설에서의 집단감염도 여전히 발생하고 있기에 감염취약시설 내 고위험군 보호를 위한 집중 관리도 중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서선욱기자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